

# 화이트데이 한 달 앞으로...특수 앞두고 명품 인상 또 잇따를까

**올들어 명품 브랜드 화장품·잡화 인상 잇따라  
부쉐론, 국내서 5% 안팎으로 가격 인상 나서  
샤넬, 올해 주얼리·시계·뷰티 차례로 올리기도**

명품 브랜드들이 올 들어 설 연휴와 밸런타인 데이를 앞두고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 선물과 쇼핑 수요가 많은 '데이(Day)' 마케팅 특수를 노리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다음달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또다시 가격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명품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BOUCHERON)'은 지난 7일 국내에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인상 폭은 5% 안팎이다.

대표적으로 '와트로 클래식 웨딩 밴드'는 282만원에서 296만원으로 5.0% 올랐고, '와트로 레디언트 에디션 웨딩 밴드'는 345만원에서 366만원으로 6.1% 인상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약혼 반지 '와트로 블랙 에디션 웨딩 밴드'는 299만원에서 321만원으로 7.4% 올랐다.

이 외에 '췌뵁 보웬 펜던트, s 모티브'는 367만원에서 388만원으로 5.7% 올랐고, '췌뵁 보웬 펜던트, xs 모티브'는 261만원에서 271만원으로 3.8% 인상했다.

한 해에 가격을 두 차례 이상 올리는 'N차 인상'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샤넬(CHANEL)은 지난달 9일 주얼리와 시계 품목을 대상으로 첫 번째 가격 인상에 나섰다.

블랙 또는 화이트 세라믹 소재의 시계 J12 33mm는 기존 827만원에서 865만원으로 4.6% 올랐고, 주얼리 제품 중에서는 코코크러쉬

링 스톤 모델이 430만원에서 441만원으로 2.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1일에는 뷰티 제품의 가격을 5~10% 인상했다.

대표적으로 '넘버5 오 드 빠르팡(35ml)' 제품은 기존 12만6000원에서 13만6000원으로 7.9% 올랐고, 남성 제품인 '블루 드 샤넬 오 드 빠르팡(50ml)'은 13만5000원에서 14만6000원으로 8.1% 인상됐다.

또 립스틱 제품인 '루주 코코'는 기존 5만5000원에서 5만9000원으로 7.2% 올랐다. 베이스 제품인 '르 블랑 메이크업 베이스'는 7만9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7.6%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브랜드 에르메스(HERMES)는 지난달 17일 주요 인기 워치 제품에 대한 가격을 10% 안팎으로 올렸다.

'슬림 데르메스(SLIM D'HERMES) 워치' 39.5mm는 3228만원에서 3525만원으로 9.2% 올랐고, '슬림 데르메스 지엠티(SLIM D'HERMES GMT) 워치' 39.5mm는 3204만원에서 3541만원으로 10.5% 인상됐다.

디올(Dior)은 지난달 10일 대표 인기 제품인 로즈드방, 디올아무르, 젤디올 등 고가 라인의 귀걸이, 팔찌, 반지 등의 가격을 최대 12% 넘게 인상했다.

가장 인상 폭이 큰 라인은 '디올아무르'로, 옐로우골드 기준 팔찌는 3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12.5% 올랐고, 목걸이는 35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11.4% 인상됐다.

'피겨 퀸' 김연아의 결혼반지로 화제를 모았던 젤디올 반지는 색상과 다이아몬드 개수, 크기에 따라 350만원에서 2800만원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이번 가격 인상으로 370만원에서 3000만원대로 가격이 인상됐다.

명품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앤코(TIFFANY&Co.)는 지난달 11일, 5% 안팎 가격을 올리더니 같은 달 25일에는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일부 제품의 가격을 4% 안팎으로 올리기도 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비통모헤네시(LVMH)가 보유한 코스메틱 브랜드 '겔랑(GUERLAIN)'도 지난 1일 일부 제품의 가

격을 4% 안팎으로 올렸다.

명절 이후에도 명품 브랜드들의 인상 소식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일부 명품 브랜드들이 거론되며, 인상설이 나온다.

루이비통(Louis Vuitton)은 올해 들어 인상 소식이 들리지 않는 브랜드 중 하나다. 다만, 과거와 같이 기습적으로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조만간 가격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때문에 선물 수요가 특히 높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주요 백화점 등 명품 매장에도 고객 발걸음이 몰릴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올들어 명품 인상 흐름이 계속 되면서 민트급(신품에 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명품 리셀 상품) 판매 전문 강가스백화점 등에도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서도 주요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을 이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수권기자

## 중흥건설그룹,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 견본주택 개관

광주 남구 대단지 '초품아'...합리적 분양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눈길'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16일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는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77-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7층 17개동, 전용 84·108㎡ 총 1,575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전용 84㎡A 591세대 △전용 84㎡B 419세대 △전용 84㎡C 196세대 △전용 108㎡ 369세대 등이다.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 분양 일정은 2월 26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화) 1순위, 28일(수) 2순위 순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어 3월 7일(목)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3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3일간 진행된다.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 평균 분양가는 3.3㎡당 1,649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하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또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를 통해 주택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이어 재당첨 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여기에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 장, 야영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송암근린공원)을 통해 조성되는 공원을 품은 아파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계획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30%에는 주거시설 등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입주주민들은 대형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영구 조망까지 가능하다.

송암근린공원은 약 37만㎡ 규모에 △활빛마당(DYNAMIC PARK) △솔빛마당(ECO-HEALING PARK) △늘빛마당(COMMUNITY PARK) 등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활빛마당'에는 문화복지센터와 축구장을 비롯해 야영장, 놀이터 등 각종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구축된다. 이어 '솔빛마당'은 생태학습원과 쉼터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여유 있게 주변 자연환경을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늘빛마당'에는 만남의 공간과 도시 텃밭, 건강마당 등을 통해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로 만들 예정이다.

### 도·도보권...광주 남구 중심 생활권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아' 수혜도 눈길을 끈다.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는 단지 앞에 초등학교 부지(계획)가 자리하고 있다. 또 효천중학교와 인성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한다. 여기에 광주에서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진월동과 봉선동에 형성돼 있는 학원가도 근거리에 위치해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유리하다.

광주 남구 중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점도 주목된다.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는 효천지구와 진월지구가 가깝다. 진월지구는 남구 중심 주거지로 손꼽히는 곳이며, 효천지구는 약 3만 명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거듭난 상태다.

지역경제 활성화 수혜도 기대된다. 최근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 바로 인근에 위치한 송암일반산업단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는 이곳에 미래차 산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다양한 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단지 주변에는 '경전선 효천역'이 위치한다. 최근 광주시는 '광주~전남 나주 광역철도 노선'에 효천역을 포함 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효천역이 노선에 포함되면 호남권으로의 이동이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제2순환도로 효천IC가 가까운 만큼 차량을 통한 이동도 수월하다.

대단지 프리미엄도 눈길을 끈다.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는 총 1,575세대로 광주 남구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에 따라 단지 규모에 걸맞은 입주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각종 고품격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 주택전시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75에 위치하며, 입주예정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이슬비기자

◆ 약 37만㎡ 대형공원 품은 아파트...축구

◆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 '초품아', 중·고교

## '넥쏘' 판매 늘까...보조금 혜택에 新모델 출격



국내 유일의 수소 전기차인 현대차 넥쏘 판매가 부진하다. 첫 출시 후 시간이 지나면서 모델이 노후화했고, 수소 충전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여전히 낮은 절반가량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충전소도 꾸준히 늘고 있어 내년에 완전변경 모델이 출시되면 다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18년 처음 출시된 현대차 넥쏘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827대 판매됐다. 부족한 충전 인프라에도 차세대 친환경차의 선두 주자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판매량도 꾸준히 늘었다. 2020년 6400여대가 팔린 데 이어 지난 2022년에는 처음으로 1만대 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지난해 넥쏘는 총 5594대가 생산됐으며, 그중 4328대 정도만 국내에서 판매됐다. 224대는 해외로 수출됐다. 나머지 1000대 가까이 재고로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사이 판매 대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 상대인 전기차의 가격

인하로 수소차의 가격 매력도 줄었고, 수소 충전 인프라 증가 속도도 전기차충전소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이 느리다"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델도 단 1개로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노후화했다는 점도 수소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다시 수소차 시장에도 활기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가 수소차에 여전히 전기차의 5~6배에 달하는 보조금(3250만원)을 제공하고 있고, 넥쏘의 완전변경 모델도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다.

현대차는 지난해 신형 넥쏘 양산을 위한 시제품 개발을 시작했으며, 연간 생산 목표를 3만대 수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넥쏘 출시 예상 시기는 내년 1분기다.

수소차는 보조금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남산터널 등에서 요금 면제나 감면 혜택도 받는다.

수소 충전소도 아직 부족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 따르면 2018년 국내 13곳이었던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267곳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해 18곳이 새로 들어섰다.

수소차는 전기차와 달리 내연기관처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인프라만 어느 정도 갖추면 충전의 불편함을 빠르게 없앨 수 있다. 현재 전국 주유소 개수는 1만곳이 넘는다.

서선욱기자

## SPC파리바게뜨, 스포츠 마케팅 강화

미국법인, 슈퍼볼 시즌 맞아 미식축구 빵 선보이기도

SPC 파리바게뜨가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소비자 접점을 늘리고 있다. 프랑스 축구 구단 파리 생제르맹과 협업해 국내에서 축구공 케이크를 출시한 데 이어, 미국에선 '슈퍼볼'을 기념해 미식축구공 모양 도넛과 케이크를 선보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미국 법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을 기념해 최근 미식축구공 모양 도넛을 출시했다.

도넛과 함께 미식축구공 모양 케이크도 함께 선보였다.

파리바게뜨 미국 법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2월 초 해당 제품을 공개했다.

사진과 함께 "단 것을 좋아하는 풋볼 팬이라면 방문해 풋볼 도넛을 이용해 보라"며 "풋볼을 보기 위해 모임을 할 예정이라면 풋볼 케이크도 잊지 말라"는 글을 게시했다.

파리바게뜨는 프랑스 축구 구단 파리 생제르맹과 협업해 지난해 말 국내에서 축구공 케이크를 출시했다.



이 외에도 파리 생제르맹 협업 가방을 공개하고,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현지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는 VIP 관람 투어 패키지 등 인기 선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오유나기자

## "로봇청소기 구입해 볼까"...로보락, 최대 24% 할인판매

'디지털 라이프 빅세일' 참여

로보락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G마켓·옥션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라이프 빅세일'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로보락은 이번 프로모션에서 플래그십 모델인 ▲로보락 S8 프로 울트라 ▲로보락 S8 플러스 ▲로보락 S8 등 로봇청소기 3종과 무선청소기 ▲로보락 다이애드 프로 등 청소기 4종을 최대 24% 할인 판매한다.

빅세일 행사기간 동안 로보락 로봇청소기를 구매한 후 포토상품평을 남긴 고객에게는 전

용 세제와 메인 브러시, 먼지 필터, 일회용 물걸레 패드 등으로 구성된 액세서리 3종 세트를 증정한다. 무선청소기 로보락 다이애드 프로를 구매하고 포토 상품평을 남긴 고객에게는 전용 클리너를 제공한다.

김서영 로보락 한국 마케팅 총괄은 "봄을 앞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청소기 구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로보락 인기 제품 4종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